

여가부, 제2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정부 기념식

“잊지 않겠습니다”... 응원·연대 다짐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기림의 날) 두 번째 정부 기념식이 열렸다.

여성가족부(여가부)는 지난 14일 오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기림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식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경애, 이옥선, 이용수 할머니가 참석했다.

8월14일은 지난 1991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고(故) 김학순 할머니가 위안부 피해사실을 최초 공개 증언한 날이다.

2012년부터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아시아연대회의는 이날을 세계 위안부의 날로 정하고 기념활동을 펼쳐왔다. 우리나라는 2017년 입법과정을 거쳐 2018년 첫 정부기념식이 열렸다.

올해 식전공연과 편지낭독, 기념사, 기념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식전공연에서는 초등학생으로 구성된 청아라 합창단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어린 시절을 회상하는 노래를 불렀다.

이어진 편지낭독 순서에서는 배우 한지민씨가 위안부 피해자의 유족이 어머니에게 드리는 편지를 낭독했다.

진선미 장관 “연구 이유로 피해자 상처 해지지 말라”

유족들 “철없을땐 부끄러웠던 엄마, 미안하고 죄송”

이용수 할머니 “돈이 아닌 사과” 교육·연대 강조

편지를 통해 유족의 딸은 “빠가 튀어나올 정도로 다친 어깨와 허리 때문에 팔을 들어 올리지도 못 하시는 엄마를 보면서 무언을 하든 그렇게 심한 상처를 입으신 건지 차마 물어보지 못했다”며 “내 주변의 친구들이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어쩌나 그저 두렵기만 했다. 어쩌면 저는 아무것도 알고 싶지 않았던 것 같다. 그래서 애써 외면했다”고 고백했다.

그는 “가연은 우리 엄마, 미안하고 죄송하다. 그 깊은 슬픔과 고통을 안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가슴이 아파온다”고 말했다.

딸은 “어머니는 그렇게 바라던 진정한 사죄도, 어린 시절을 보상도 받지 못하고 우리 곁을 떠났다”며 “이런 아픔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이어가겠다. 반드시 엄마의 못다 한 소망을 이뤄내겠다”고 다짐했다.

진선미 장관은 기념사에서 “외교·

경제적 불안, 연구라는 이유로 끝없이 피해자들의 오랜 상처를 해집는 잔인한 행위는 멈춰야 한다”며 “우리 모두가 피해자의 아픔에 공감하고, 다시는 이런 비극 일어나지 않도록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는 다짐할 때 위안부 문제는 해결될 것이며 여성인권 상징으로서의 평화의 가치가 실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1991년 오늘, 고(故) 김학순 할머니가 처음으로 피해사실을 증언해 우리는 이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했다”며 “특히 올해는 3·1운동과 임시정부수립 100년이 되는 해여서 이 지리가 갖는 의미와 무게감이 더 크게 다가온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어떤 인권운동가보다 큰 울림을 줬던 할머니들이 점점 우리 곁을 떠나고 계신다. 지난해 기림의 날 이후 1년 사이 벌써 8분이 돌아가시면서 정부에 등재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는 단 20명만 남



제2회 위안부 기림의 날인 지난 14일 전주시 풍남문광장에 설치된 소녀상 뒤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았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진 장관은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국내외 기록물 발굴과 조사를 심층적으로 연구·지원하고 보존하고 기억해야 할 자료를 아카이

브로 집대성해 연구와 조사의 체계적 기반 다져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보편적 여성인권 문제로 정립하고 역사적 교훈으로 기억하도록 자라나는 세대를 교육하겠다”며 “피해자가 수용할 수 있는 사과를 받기 위해 시민단체와 소통하고 기념사업도 성의를 다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는 “학생과 청소년들에게 위안부 피해 사실을 가르치고 알려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돈이 아닌 사과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 기념식 외에도 지방자치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마련한 다양한 전시, 공연, 행사 등이 개최되면서 전국적인 추모분위기가 조성됐다.

일본군성노예문제해결을위한정기·기억연대는 이날 1400차 정기수요시위에서 거리전시회, 경과보고, 성명낭독, 문화공연 등을 벌였다.

나눔의 집은 8일부터 20일까지 서울 갤러리이즈에서 ‘할머니의 내일’이라는 이름으로 할머니들의 기록물과 관련물품을 소개하는 전시회를 연다. /뉴시스

“일본군 위안부 문제 국제사회 공유할 것”

문 대통령, 기림의 날 메시지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 최선”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인 지난 14일 “인류 보편적 관점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평화와 여성

성인권권에 대한 메시지로서 국제사회에 공유하고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8월 14일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고 정부 주관 기념 행사를 치르고 있다. 8월 14일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고(故) 김학순 할머니가 1991년 피해 사실을 처음으로 증언한 날이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오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기릴 수 있었던 것은 28년 전 오늘, 김학순 할머니의 피해 사실 첫 증언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그날 할머니는 내가 살아있는 증거입니다”라는 말씀으로 오랜 침묵의 벽을 깨셨다”고 적었다.

이어 “김학순 할머니의 용기에 힘입어 슬픔과 고통을 세상에 드러낸 할머니들께서는 그러나, 피해자로 머물지 않으셨다”며 “여성 인권과 평화를 위해 연대하는 인권운동가가 되었고 오늘 1400회를 맞는 수요집회를 이끌어 국민들과 함께 하셨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할머니들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할머니들이 계셔서 우리도 진실과 마주할 수 있었다”며 “세계 시민사회와 연대해 다른 나라의 피해자들에게도 희망을 주셨던 수많은 할머니들과 김복동 할머니를 기억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어가는 것이 할머니들의 희망을 이어가는 것”이라며 “오늘 기림의 날, 항상 슬픔이 희망으로 승화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민주당 군산지역위, 상무위원회서 당직구성 마무리

지명직 운영위원 등 총 21명

더불어민주당 군산지역위원회(위원장 신영대, 이하 군산지역위)는 상무위원회를 개최하고 지역위원회 당직 구성과 대의원을 선출했다.

민주당 군산지역위에 따르면 상무위원회를 통해 주요 당직 구성 현황을 보고하면서 시의원 전면 배치, 특화된 전문가 배치, 기존 당직자 인배 등 당직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군산지역위를 이끌어 갈 21명의 운영위원 중 지명직 운영위원에는 현 군산시의회 김경구 의장이 사무국장에는 김우민 의원, 여성위원장에 송미숙 의원, 청년위원장에 박광일 의원, 농어민위원장에 이한세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다음으로 다문화위원장에 박해나 군산베트남이주여성협의회회장, 장애인위원장에 정경섭 군산시장애인연합회 회장을 임명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군산지역위는 주요 정책 개발과 당원 간의 소통 창구를 마련하기



위해 ‘포용적 성장과 평화경제를 위한 여정’이라는 주제로 정책 페스티벌과 대의원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오는 31일 열릴 예정인 더불어민주당 군산지역위 대의원대회 준비위원장으로 김경구 의장을 선임했다.

신영대 위원장은 “100년 전 나라를 되찾기 위한 절실한 마음들이 모였던 것처럼 승리하는 민주당, 화합하는 민주당, 민주적인 민주당을 만들어 집권 여당으로서 군산시민들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군산지역위로 재탄생 할 것”이라며 “각계각층의 의사를 반영해 군산의 발전 방향과 대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전북 찾은 정동영 “탈당 의원, 지금이라도 돌아와라”

평화당 최고위 전주서 개최

“재창당 통해 범진보연합 탄생”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탈당 당 의원을 향해 “지금이라도 돌아오라”고 마지막 읍소에 나섰다.

지난 14일 민주평화당 현당 최고위원회를 위해 전북을 방문한 정 대표는 이날 전북도의회 기자회견에서 “당 이 분열위기를 맞게 돼 전북도민에게 죄송하다”고 인사말을 한 뒤 탈당 의사를 밝힌 의원들 향해 “탈당 시점을 밝힌 오는 16일까지 이들이 남았다. 당의 문은 열려있다. 분열해서는 될 일이 아니다”며 하루빨리 돌아올 것을 밝혔다.

정 대표는 “민심이 거부하는 현실이 돌아와야 하는 이유다”며 “국민은 물론 당원의 압도적인 비율이 탈당을 비난하고 있다. 살길이 아니라라는 것이 증명된 만큼 지금이라고 돌아오라”고 거듭 강조했다.



“일본 무역보복 저지 동참”

전북지역 14개 시군 전통시장과 상점가 상인들의 모임인 전북상인연합회 회원들은 14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일본 정부의 무역보복행위의 즉각 철회와 이에 따른 민간차원의 저지운동에 혼신을 다할 것”을 천명했다.

민심을 ‘불로 점치’인 ‘불고기’로 비유한 정 대표는 ‘민심에 합류하지 못하면 불고기는 살 수 없는 것처럼 실패의 징조라면 돌아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창당”에 대한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정 대표는 “오히려 이번 사태가 민주평화당이 원래 지향했던 것을 이룰 수 있는 상황이다”며 “여성과 청

년, 농민과 소상공인 등이 참여하는 정치, 아래로부터의 정치를 하겠다”면서 “평화당이 재창당을 통해 범진보 연합으로 탄생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자리에 함께한 비주현 최고위원은 “위기는 기회라고 생각한다. 새로운 공존의 정치를 이룰 것이다”고 정 대표의 의견에 힘을 실었다. /뉴시스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